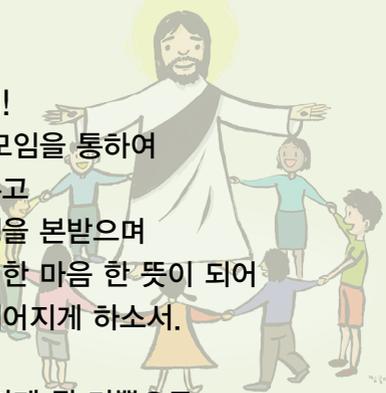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에, 매월 2째주 혹은 3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 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1] 주님초대하기
-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 [5] 말씀 살기
 -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 [6] 마침기도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연중 제5주일(2월 10일)

고기잡이 기적 -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다

(루카 5,1-11)



베드로의 배

- 익명의 화가, 프레스코, 12세기, 카탈루냐 박물관, 바르셀로나, 스페인 -

원래 이 작품은 카탈루냐 지방에 있던 성 베드로 성당의 제단 뒷부분을 장식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져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되자 베드로(뒤편)와 안드레아(앞편)가 놀라워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가운데 있는 다른 어부는 물고기가 가득 담긴 그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간힘을 쓰고 있다.

출처 :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시작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8장 “주님을 부르던 날”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소서.
- 주님,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루카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1 예수님께서 겐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2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3 예수님께서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물에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4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5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6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7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8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9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10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11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물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 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루카 5,5)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어떻게 노력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루카 5,10)

우리는 이웃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나중에 베드로(반석)라고 불리게 되는 시몬이 등장합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좀 더 배움이 깊고 유능하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으시고, ‘왜 부족함의 전형인 시몬을 비롯한 어부들을 위주로 제자들을 모으실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을 “선생님”(히브리어는 랍비, 그리스어는 디다스칼로스)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보다 더 높이는 “스승님”(에피스타테스)이란 존칭을 사용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루카 5,5)

시몬의 답변은 오늘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일깨우는 명언입니다. 곧 아무리 노력해 봐야 도무지 결과가 안 보일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저 시몬처럼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겸손과 용기를 청해봅시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달 우리 소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생활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8장 “주님을 부르던 날”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연중 제6주일(2월 17일)
참행복
 (루카 6,17.20-26)



산상설교

- 프라 안젤리코, 1440 -

맑고 순수한 색채와 간결하고 정제된 형태와 구도를 통해 그리스도교 정신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세 전통에 따라 험벗은 바위 모습으로 묘사된 산 중턱 중앙에는 예수님이 앉아 있고, 그 주위에는 열두 제자들이 원형으로 둘러앉아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밝고 화사하면서도 고요하고 성스러운 분위기가 결들여져 있기에 그림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중심의 가치관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도록 오묘하게 이끕니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성경미술관 (<https://blog.naver.com/sonyh252>)

시작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37장 “행복한 사람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소서.
 - 주님, 당신 안에서 참행복을 얻도록 이끌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루카복음 6장 17절,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17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20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21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22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23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24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25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26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 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루카 6,20)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어떤 가난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루카 6,25)

우리는 상대방의 불행과 슬픔에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참행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산상 설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은 마태오복음 5,1-2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군중을 가르치셨다는 데서 유래하고, 루카복음에서는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서”(루카 6,17) 가르치셨다고 하여 “평지설교”라고도 합니다.

현재 갈릴래아 호수 왼쪽에 있는 언덕에는 “참행복 선언 기념성당”(The Church of the Beatitudes)이 있는데, 그곳은 갈릴래아 호수 면에서 150m 정도 높이에 있어서 산이라고 하기보다는 구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산상설교”든 “평지설교”든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갈릴래아 호수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환상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게 된 군중들이 느꼈을 행복이 컸겠다는 것이겠지요.

오늘 우리는 루카복음에서 행복선언과 더불어 불행선언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언덕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행복선언에 마음이 머물기보다 불행선언에 시선이 많이 머물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진 것을 나누지 않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즐겁고 행복하면 된다고 살아가는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런가 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행복선언에 더욱 머물 수 있도록 주변의 고통 받고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밝은 눈을 청해야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달 우리 소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생활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37장 “행복한 사람들”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공동체

-진동본당 구역분과장 최현순(안나)-

저희 본당 역사는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완월동본당 소속 금산공소로 설립된 뒤 자리를 옮겨 1981년 삼진공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 후 본당승격을 소망하던 신자들은 교구장 박정일(미카엘)주교님께서 신자 수 150명이 되면 본당으로 승격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시자 신자들은 하나가 되어 세대별로 3일씩 돌아가며 9일기도를 108일 동안 봉헌하였습니다. 마침내 신자 수가 150명에 이르게 되었고, 1993년 8월 17일 본당으로 승격되어 지난해 2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본당의 현재 구역은 총 4구역 7개 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김정우 라파엘 신부님께서 부임하신 후 구역별 반 미사, 매주 미사 후 성전청소, 구역별 화단가꾸기, 냉담자 및 전입자 방문, 홀로 계신 분 반찬배달, 김장 배달, 환자 방문 등 많은 활동과 봉사를 하고 있으며, 연 2회 소공동체장 단합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본당 25주년 기념하여 매월 행사를 실시하였는데, 특별히 구역별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잘 모르고 지나치던 형제님과 자매님, 쉬는 교우 모두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며 구역 공동체가 더욱 단합되고 활성화될 수 있었습니다.

소공동체는 4구역으로 구성되며 태봉리부터 양촌리까지 매우 넓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2 구역은 새로운 아파트와 기존의 주택단지로 이루어져 있고, 3, 4 구역은 기존의 주택단지로 연세 드신 분이

많으나 반장님과 총무님이 동행하여 반 미사나, 그 밖의 반 행사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역분과장으로서 부족함이 많지만 노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봉사해 주신 소공동체장님과 모든 분들 덕분에 배우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어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구역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 되어 본당에 더 큰 도움이 되게 노력하며 봉사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소공동체 활성화의 원천인 말씀

소공동체 활성화의 원천인 말씀

소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첫 번째 길은 신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맛들임으로써 “삶에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주님의 말씀, 11항)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때, 피동적 신앙에서 스스로 새롭게 거듭나려는 ‘능동적 신앙’으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살아 있는 신앙은 자신 안에 갇히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는 열정’으로 가득 채웁니다. 곧,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 줍니다.”(복음의 기쁨, 1항)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한층 높은 차원에서 더욱 강렬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줍니다.”(복음의 기쁨, 10항) 이 ‘말씀을 만나고 나누며 살아가는 힘으로’ 소공동체는 스스로 성장하며 본당과 지역 사회를 복음화하는 생명력을 지닙니다.

“우리 시대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경청과 새로운 복음화의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생활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중심적 위치를 재발견하는 것은, ... 특히 복음이 잊히고 세속주의의 확산으로 복음에 무관심해진 나라들에서 새로운 복음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해 줍니다.”(주님의 말씀, 122항)

말씀과 함께 성장하는 소공동체

소공동체가 더욱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모임 때마다 정해진 틀에 따라 복음 나누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느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독서와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는 반복적인 복음 나누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단조로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말씀에 대한 진지한 이해와 묵상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의 부족으로, 소공동체는 일정한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구성원들이 모여 매번 비슷한 수준의 생활 나눔에만 머물기 쉽습니다. 따라서, 소공동체 모임은 말씀을 나누며 활동을 정하는 공동체 이기에 앞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맛 들여 복음을 실천하는 작은 교회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만나는 데에서 생겨나는 기쁨을 전하는 것은 교회가 받은 선물이며 동시에 회피할 수 없는 교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다시 한 번 하느님을, 우리가 생명을 넘치도록 얻게 하시고자(요한 10,10 참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그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주님의 말씀, 2항)

- 소공동체 교육교재 『한마음 한 뜻으로』(천주교 수원교구 복음화국)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사목국 일정

■ 복음화분과위원 연수

- 일 시 : 2월 24일(일) 10:00~16:00
-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 주 제 : 신천지 실체와 사목적 대응
- 대 상 : 각 본당 복음화분과위원, 교육분과, 선교분과, 사목위원
- 참가비 : 1인 20,000원(자료집, 점심 제공)
- 준비물 : 미사도구, 필기구, 개인컵

■ 신임 소공동체장 연수

- 일 시 : 3월 11일(월) 10:00~15:30
- 장 소 : 교구청 1층 대강당
- 대 상 : 신임과 재교육을 원하는 소공동체장
- 참가비 : 1인 10,000원(점심 제공)
- 준비물 : 필기구, 개인컵
- 신 청 : 교구 공문을 참조하여 본당을 통해 신청
- 문 의 : 055)249-7021~3